

追遠齋重修記

記에曰追遠報本이라하고語에曰慎終追遠이라하니蓋追遠者는先以報本而後以慎終也라惟我追遠齋之設이迄今百有餘星霜에隨毀隨補者亦云多矣라顧今齋貌之傾頹則礎列이舛子午하고瓦縫이失鳶鳶하고况又齋室與門庭이甚於來窄하여當其香薦之日에不億雲仍이實難昭穆之成列하여不獲己以修繕之意로詢于諸宗則咸曰事固當然이나然이나門財告罄에寒宗貧族이難以竣功하고且况遠外諸宗이雖云蕃衍이나難以通告하고告亦難合하니爲之奈何오然이나事迫晷刻이라失今不修면更待何日이리오詢謀僉同하여一門齊會之席에以余不佞으로推之以幹事之任하니自顧不才가實難擔任이나然이나均是子孫으로義不獲辭하여始爲經之하니一以鳩財하고一以募工하여礎列之舛은改以正之하고瓦縫之失은易以新之하고齋室之樸陋와門庭之來窄을拓而廣之하니少添前日之光彩라奠祖之禮에極其敬하고致祭之方에盡其誠하여閱八個月而功始告訖하니此非先祖王俯視之澤이면烏能致此成立之功乎아吾宗之慶이孰大於是리오竊顧僉宗은勿以今日修繕之不敏으로爲嫌하고益加誠力하여隨事繼述則此齋之作이愈久而長存하고先祖之澤이愈遠

而長流하여與天地不泯則鳥不美哉아詩에曰先祖是皇神保是饗이라하니此之謂也라

甲子四月 日에 後孫源益은謹記하노라

추원재(追遠齋) 중수기(重修記)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그본에 보답해야 한다.」라고 하고, 『논어(論語)』에 말하기를 「마침을 신중히 하고 먼 조상을 추모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먼 조상을 추모한다[追遠]는 말은 먼저 그본에 보답한 후에 마침을 신중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집안에서 추원재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一백여 성상(星霜)이 되어 허물어지는 대로 보수한 것이 여러 차례였는데 지금에는 집이 기울고 주춧돌이 깨어져 곧 무너지게 되었고 기왓골이 맞지 않으며 더군다나 재실과 뜰의 나무 죽아서 재향을 올린 날 수 많은 자손이 실로 소목(昭穆)대로 늘어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 보수하자니 뜻을 여러 종인들과 의논했다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집안의 재정의 바닷살다. 가난한 여러 종인들 일일 마치기 어렵고 또 먼 곳에 사는 종족들의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알리기가 어렵고 알리더라도 뜻이 통일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일이어서 지금을 놓치고 수리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하거니와 집안의 다함께 모여 나를 간사(幹事)의 직책에 추대하였다. 생각하건대 나는 재주가 없어서 실로 책임일 맡기 어렵구나 다 같은 자손으로 의리상 사양할 수가 없어 비로소 일을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재정을 모으고 한편으로는 공인(工人)을 모집해 비틀어진 주춧돌 기와 바로잡고 줄이 깨어진 기와는 바꾸어 새로 끼우고 좁은 재실방과 뜰이 넓히니 조그마한 전일보다 빛의